



정재희씨



박종례씨



나점수씨



안익현씨



위경애씨

## 실버 라운지



권성옥

연말이 다가오면서 주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관심과 배려의 손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손 가정은 대표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조손 가정이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보살피고 있는 있는 가족의 형태를 말한다. 이를 조부모들은 대부분 성인 자녀의 이혼이나 재혼, 사망, 가출, 경제난 등으로 인해 손·자녀의 일차적인 양육 책임자가 되고 있다.

조부모는 특성상 구상원간 갈등이 없을 수 없다. 조부모가 손자녀의 부모 역할을 하다 보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할 뿐만 아니라, 손자녀 양육에 따른 활동의 제약으로 고립감, 우울증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 자신들도 노령인 상황에서 손자녀들의 양육에 힘을 쏟아 보면 건강이 악화되고 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에 허덕이게 된다.

손·자녀의 정서적 안정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손자녀는 부모의 사망, 이혼, 불화, 실직 등으로 불건전한 환경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즉, 정서적인

## ■ 평범한 노인들 '자서전'을 쓰다

## “내 삶보다 소중한 이야기가 어딨어?”



생활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일은 또 다른 행운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전 영산강농지개량조합장 나점수씨는 큰 병에 걸려 입원 중이던 아내를 돌보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만 했던 아픈 기억을 털어놨다.

그는 “큰 아들은 크게 울며 어머니 손을 잡아 가슴 위에 올려놓고 하얀 이불을 덮었다. 당신이 나를 만나 자식농사 잘 지었다고 늘 하던 자랑은 어찌하고, 우리 살 집을 놀려 키워 여기 별장 같은 집에 왔지 않는가. 그 고생 말 다 못하겠네. 이제 무엇이 그리도 바빠 나 먼저 빨리 떠나갔는가...”라며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절절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밖에도 고등학교 교장 출신 안익현씨, 가족들과 이민을 갔다가 혼자 한국에 돌아온 김경옥씨, 서에 작가의 길을 걷는 위경애씨, 하느님과 함께한 인생을 펼어놓은 박행도씨와 이의충씨 등 8명의 인생이 이 한 권의 책에 오롯이 담겨 있다.

이들의 글쓰기와 자서전 출간을 지도한 이계양(문학평론가) 교수는 “자서전은 크고 화려하고 자랑스러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의 자서전은 작고 소박하고 부끄러운 삶의 이야기들이 어도 아름답고 소중한 자서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YMCA는 내 인생 자서전 학교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내년 3월 2기 자서전 학교를 개설할 예정이다.

자서전 학교의 실무를 맡은 광주YMCA 정의춘 강사는 10일 “자서전에 담긴 어르신들의 소중한 삶의 경험은 이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다”며 “내년에도 자서전 학교를 열어 노인들이 새 삶을 설계하고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YMCA 자서전 학교 졸업생

## '8인의 삶, 소중한 순간들' 책 펴내

이들은 ‘당신의 삶보다 위대한 이야기는 없다’라는 주제로 열린 광주YMCA ‘내 인생 자서전 학교’ 졸업생들이다. 이들은 4월부터 8개월 여 걸쳐 배운 글쓰기와 자서전 출판법을 바탕으로 자서전 ‘8인의 삶, 소중한 순간들’을 펴냈다.

처음 11명으로 출발했지만 개인 사정 때문에 8명만이 교육을 마치고 자서전을 출간하게 됐다. 이들은 8개월 동안 글쓰기로 배우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책으로 엮어내는 만만치 않은 과정을 소화해 냈다. 매주 화·목요일 1시간 30분씩 두차례 8개월 과정으로 자유연상법, 디지털 카메라 활용법, 편집 및 인쇄 등 자서전 출간에 관한 실무를 익혔다.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이사장을 지낸 정재희씨는 이 책에서 “1982년 무진교회에서 부상자회 결성 모임을 가졌을 때 전경들이 교회를 둘러싸고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해 여간한

의지가 없었다면 부상자회는 태동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당시의 어려웠던 상황을 회고했다.

그는 5·18단체에 대해 “최근 일부 시민들이 민주유공자를 보는 시각이 예전만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꾀부로 느낄 수 있다”며 “일부 유

공공자들이 시대의 분위기에 들떠 5·18 민주화 운동을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겸손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발표 명령자는 온데 간데 없으며 불법으로 횡령한 거금은 오리무중으로 회수되지 않고 있어 존엄한 국법이 표류하고 있다”고 5월 역사정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못내 아쉬워했다.

함평초교 교장을 끝으로 3년 전 퇴임해 풍수아카데미를 연 박종례씨는 결혼상담관리사, 심리상담지도사, 생활작명사 등 자신이 취득한 수많은 자격증을 소개하고 “돈 걱정 없는 노후

이들의 글쓰기와 자서전 출간을 지도한 이계양(문학평론가) 교수는 “자서전은 크고 화려하고 자랑스러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의 자서전은 작고 소박하고 부끄러운 삶의 이야기들이 어도 아름답고 소중한 자서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YMCA는 내 인생 자서전 학교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내년 3월 2기 자서전 학교를 개설할 예정이다.

자서전 학교의 실무를 맡은 광주YMCA 정

의춘 강사는 10일 “자서전에 담긴 어르신들의 소중한 삶의 경험은 이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다”며 “내년에도 자서전 학교를 열어 노인들이 새 삶을 설계하고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박행도씨



이의충씨



김경옥씨

## ‘복지 사각지대’ 고통 받는 조손 가정

체 및 정신질환이나 약물복용, 미혼모의 증가하고 있는 것도 가족해체 현상을 심화시키는 한 원인이다.

더 나아가 재혼 가족의 부적응과 한부모 가족의 해체까지 이어지면서 조손 가정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5년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세대 구성별 가구원수 자료에 따르면 총 1천587만7천128가구 가운데 조손 가정은 0.37%인 5만8천101가구에 달한다.

한발 더 나아가 지역 복지기관에서도 조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서비스나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현재 양육자로서의 조부모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개선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체계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명절이나 연말이 되면 후원금이나 물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다.

조손 가정에 대한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는 과제가 아니다. 주위에 조손 가정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있다는 점 때문에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지역 기관의 노력과 더불어 이웃들의 따스한 관심과 사랑이 절실히 요구된다.

(초당대 사회복지과 겸임교수)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지산주유소쪽으로 70m)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의뢰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린사회/월류 대표이사 010-7570-7525

아파트/빌라 월류경매 010-7570-7525 주택/재개발 권리원물장 010-608-5951

소재지 대지/건물 갈망가 최저가 비고

우송동 대72, 건1431 67억 37평 거동자녀사스

목암동 대70, 건175 4억8천 1억7천 인터내셔널

우산동 대18, 건193 1억8백 4억7천 노부평건물

별곡동 대498, 건733 595천 8억2천 자동차학원

암천동 대382, 건983 41억4천 21억 능화학원

성평동 대151, 건416 14억 6억2천 오피스텔

문일동 대146, 건400 1297천 5억7천 거제지상층

선임동 대117, 건181 592천 2980원 아름인신

학동 대14, 건181 11억 9억1천 노부빌드

고척동 대983, 건85 22억 10억 종합병원

전주시 대51, 건542 18억 5억9천 세나미

의신동 대517, 건106 30억 15억6천 나이트클럽

화정동 대341, 건661 1694평 8평 독서실

소재지 대지/건물 갈망가 최저가 비고

연제동 대100, 건317 9억6천 5억4천 5층관련주택

임동동 대25, 건264 12억 5억4천 4층관련주택

광성동 대66, 건125 3억6천 2억5천 3층관련주택

학동 대47, 건57 1억9천 8천원 2층관련주택

우송동 대83, 건216 3억2천 1억7천 4층관련주택

나주동 대114, 건30 3억2천 1억7천 1층관련주택

나주동 대58, 건25 9억4천 3천원 1층관련주택

오지동 대152, 건56 1억5천 7천원 2층관련주택

월산동 대105, 건266 4억6천 2억5천 3층관련주택

서소동 대30, 건127 2억6천 1억6천 5층관련주택

금남동 대83, 건326 20억 4억5천 5층관련주택

광주동 대71, 건133 2억4천 1억5천 3층관련주택

도산동 대71, 건133 2억4천 1억5천 3층관련주택

월곡동 대87, 건125 2억5천 1억2천 2층관련주택

월곡동 대107, 건125 2억5천 1억2천 2층관련주택